

연 회 등 정

■ 2006년 한국도로교통협회 제1차 이사회 및 제 37회 정기총회 개최

- 상정 3개 의안 원안의결

지난한해 우리협회 사업실적 총 결산하고 '06년도 사업계획 심의를 주요 내용으로 한 '06년 제 1차 이사회 및 제 37차 정기총회가 3월30일11시부터 도성회 6층 대강당에서 임원 및 이사, 운영위원, 대의원 등 80여명과 대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2005년도 회원현황, 운영위원회 개최실적, 발전기금 및 도로의날 행사 협찬금 출연현황 등 3개 보고사항에 이어 제 1호 의안 2005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제 2호 의안 2006년 사업계획(안), 제 3호 의안 임원개선(안) 등 3개의안이 상정되어 원안의결 되었다.

제 3호 의안, 임원개선(안)은 임원중 임기만료된 부회장 4명과 이사 6명을 전원 연임시키고, 양현승(주)우대기술단 회장 이사 후임에 김석환(주)수성엔지니어링 부회장)을 선출했다.

손 학래 한국도로교통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가 40년 역사를 지냈음에도 그동안 담보상태

에 머물다 오늘 다수 건설교통인 대표들이 참석해 정기총회를 성공리에 치르게 된 것에 감회가 새롭다고 언급한 뒤, 지속적인 후원과 참여를 당부하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남 인희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은 격려사에서 정부의 불가피한 SOC 투자 감소로 관련 기업들이 적지 않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위로한 후,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로교통인 모두가 지혜를 모아 남북도로연결 및 아시안 하이웨이구축 등 국책사업을 성공리에 수행 해 나가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혁신과 도시부 교통혼잡 해소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획과 과학적인 운영관리 시스템개발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연임임원 명단

부 회 장	황광웅 (주)건화엔지니어링 회장	손 정 (주)고속도로관리공단 사장
	박세흠 (주)대우건설 사장	김갑렬 GS건설(주) 사장 (이상 4명)
이 사	이재박 삼환기업(주) 대표이사	민경조 코오롱건설(주) 사장
	변 탁 (주)태영 사장	이금숙 (주)용마엔지니어링 회장
	유정규 (주)유신코퍼레이션 회장	이길용 (주)한국해외기술공사 사장 (이상 6명)
신임이사	김석환 (주)수성엔지니어링 부회장 (이상 1명)	

인사말 (손학래 한국도로교통협회 회장)



만물이 지지개를 켜는 약동의 계절입니다. 자고나면 달라지는 변덕스런 보기운만큼이나 하실 일들이 많으실 텐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남인희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님과 최주형 협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임원 및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우리협회도 어느덧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변변한 사무실 하나없이 서울 수하동과 충무로, 여의도 및 인근 대치동을 전전하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불혹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올해는 여러모로 뜻 깊은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이곳 도성회관에 비로서 안정된 보금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게 된 것은 그간 우리 협회를 아껴주신 여러분의 극진한 정성 덕분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도성회관 입주를 계기로 또 한번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자축해야 할 기쁨인 동시에 협회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임원 및 대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도로교통의 역사는 우리협회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66년 협회 창립 당시 우리나라 도로교통 사정은 그야말로 불모지 그 자체였습니다. 자본, 기술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게 없던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협회 출범 2년뒤 경부고속도로가 착공되고 다시 2년후 이 역사적인 도로가 개통되기까지 우리에게는 도로다운 도로하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속도로의 등장은 우리에게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국토를 일일생활권으로 만들었고 지역간 여객 및 물류수송에도 일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고속도로의 등장은 각 지역에 흩어졌던 국민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켰고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국가 경제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과 국민의 생활공간도 도로를 따라 재편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도로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간 우리나라 도로교통 발전을 위해 최 일선에서 몸을 던지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04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연장은 총 10만여 km로 단순 길이만 놓고 보면 선진국수준에 와 있는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직도 국토 1km²당 도로연장은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낮을 뿐 아니라 포장도로 중 23.4%만이 4차로 이상이고 도로포장율도 76%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연결도로 건설, 아시안 하이웨이 구축 등을 통해 한국이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자리잡기 위

협회 동정

해서는 도로교통분야에서 더 많은 개발투자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차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경우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 의식도 높아질 것이 분명한 만큼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도로 건설에 서둘러 나서야 할 때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제 정착에 따른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남북측 뿐 아니라 동서측에 대한 투자도 확충되어야 하겠으며 통일에 대비한 도로교통망 구성도 착실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에 교통체계의 지능화, 과학화, 표준화 등 도로교통의 질적 향상에 앞장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도로교통인은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하여 매진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정책방향에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임직원 및 대의원 여러분!

우리협회는 선진국의 기술동향이나 기술정보를 수집하여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회원들 간의 기술공유를 지원하고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를 활성화시켜 우리나라 도로교통 분야의 기술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에 민간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가교역할도 우리협회 몫입니다. 임원 및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협회의 이러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나아가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총회에 앞서 손학래 회장 및 남인희 건설교통부 기반시설 본부장, 권병식 도성회장 등이 참석해 협회 헌판식을 거행했다.

격려사 (남인의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

친애하는 도로교통분야의 내외빈 여러분!

날로 따사로운 햇살이 화사한 봄꽃과 조화를 이뤄 사람의 마음조차 설레게 하는 싱그러운 봄입니다.

이 희망찬 계절에 한국도로교통협회의 여러 임원님과 대의원 여러분을 만나 뵈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한국도로교통협회는 1966년에 설립되어 어느덧 40성상의 연륜을 갖는 도로교통분야의 핵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오늘 협회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도로교통 발전의 주역이자 산증인이신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주관해 개최된 “2005 국제도로교통박람회”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170개 업체와 1만 2천여 명의 관람객 및 바이어가 참가하여 성공리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소개된 신기술과 신제품들도 총 185억원의 수출 계약이 성사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도로교통협회의 창의적 경영전환은 무한경쟁시대에 독자적 생존과 도약 기반을 구축하려는 모범사례로서 타 단체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동시에, 협회의 위상을 대내외에 가일층 높인 계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도로교통인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국토 개발의 대원칙을 균형과 생산성 창출에 두고 국가기간 교통망의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미 3,0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비롯해, 총연장 10만여 km의 도로망을 갖추었고 고속화 시대를 온 국민들이 향유하고 있습니다. 도로예산이 2003년 9조원을 정점으로 최근 3년간 1조 7천억원이 감소되는 등 정부의 SOC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남북 도로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등 대외여건 변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혁신과 도시부 교통혼잡 해소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계획과 과학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도로교통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교통인 여러분!

세계는 지금 기술경쟁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천명한 우리나라가 주변국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면 무엇보다 미래의 도로교통체제를 직시할 수 있는 선견과 이를 뒷받침하는 신기술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도로교통인 여러분들의 현명한 지혜와 높은 사명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협회를 중심으로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회원 상호간 신뢰와 협력을 통해 도로교통분야의 획기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협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도로교통인 여러분과 협회발전을 위해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에라도 제시되는 여러분의 애로사항이나 정책건의에 대하여는 성의를 다하여 검토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시간이 우리 도로교통인들의 막중한 역할과 사명감을 다시 한번 다잡아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교통협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염원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남인희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이 건배를 제의하고 있다.

■ ‘한국의 아름다운길 100선’ 심사완료

- 수상작 결정 및 현지답사 실행 중

건설교통부 발주, 우리 협회에서 수행중인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최종 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6일, 선우중호 명지대 교수 등 심사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도로교통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심사회의 출품에서는 작품 중 선정심사위원회의 ① 선정의 취지 및 목적과의 적합성 및 ② 정책홍보 및 관광자료 조성의 활용가능성 ③ 주제별 적합성 ④ 제안내용

적합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우수작품 100선이 선정되었으며, 우리협회는 이에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선정작품의 현지답사 및 촬영에 들어 갔다.



□ 참석자 명단

성명 및 직위	소속	성명 및 직위	소속
선우중호 교수	명지대학교	권병윤 팀장	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
조진창 상근부회장	한국도로교통협회	이한준 선임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손원표 전무	동부엔지니어링(주)	조한규 편집국장	스포츠월드
신부용 대표	녹색교통운동	이용재 교수	중앙대학교
박용훈 대표	교통문화운동본부	이화득 여행가	여행가
나상운 대리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안진애 사무관	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
이강녕 사무관	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	박광신 기술국장	한국도로교통협회
노성규 책임연구원	한국도로교통협회	이정윤 선임연구원	한국도로교통협회

■ 도로설계 표준품셈 자문회의 개최

- 연구방법론 등 최종보고서(안) 검토

우리협회는 지난 2월23일 협회회의실에서 10개 회원사 대표자 및 집필진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설계표준품셈 회원사 의견수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어, 4월4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

회 6층 회의실에서 노성열 건설교통부 도로건설팀 서기관 등 자문위원 17명 및 집필진 4명이 참석, 도로설계표준품셈(안) 최종보고서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① 연구방법론의 적정성 ② 설계단계별 업무구분의 적정성, ③ 세부업무별/ 각분야별 산정소요인력 및 직접비 산출의 적정성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도로설계 표준품셈 회원사 의견수렴 회의 참석자 명단

성명 및 직위	소속	성명 및 직위	소속
장재영 부장	(주)유신코퍼레이션	이준구 이사	(주)도화종합기술공사
김동완 이사	(주)동일기술공사	김병수 부장	(주)건화엔지니어링
김종원 전무	(주)수성엔지니어링	이규덕 이사	(주)다산컨설팅
김시일 전무	(주)신성엔지니어링	함태식 부장	(주)제일엔지니어링
최영환 이사	(주)서영엔지니어링	조현준 상무	(주)용마엔지니어링

□ 도로설계 표준품셈 자문위원 명단

성명 및 직위	소속	성명 및 직위	소속
노성열 서기관	건설교통부 도로건설팀	진종근 차장	한국도로공사
오의진 부회장	(주)유신코퍼레이션	조행래 사장	(주)경동기술공사
문병권 사장	(주)도화종합기술공사	곽종근 부사장	(주)서영엔지니어링
김국일 사장	동부엔지니어링(주)	이해경 사장	(주)다산컨설팅
안성순 부회장	(주)평화엔지니어링	전영수 사장	(주)동명기술공단 건축사사무소
박석주 사장	(주)동성엔지니어링	김대하 사장	(주)동일기술공사
양 현 부사장	(주)제일엔지니어링	김남수 부사장	(주)경동기술공사
김대영 사장	(주)한국철도기술공사	배성식 전무	(주)청석엔지니어링
이철영 사장	(주)동호		

□ 집필진 명단

성명 및 직위	소속	성명 및 직위	소속
박광신 기술국장	한국도로교통협회	손원표 전무	동부엔지니어링(주)
정종민 전무	(주)천일기술단	김영근 이사	(주)삼보기술단
이상규 상무	(주)동성엔지니어링	이지훈 이사	(주)청석엔지니어링
장재남 차장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노성규 책임연구원	한국도로교통협회



2월23일 개최된 도로설계 표준품셈회의에서는 회원사 대표자들의 질문 및 의견수렴이 진지하게 오갔다.

■ REAAA 한국지회 이사회 개최

- 지회 조직 정비 및 회원확충 방안 논의

아시아대양주도로기술협회(REAAA) 한국지회(회장: 황 광웅)는 지난 4월6일, 본회 유 경수 부회장(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국지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회의 주요내용은 지회부회장 중 전한철 부회장 후임에 유태호 한국도로공사 건설계획처장을 선임하였으며, REAAA 본회 회장에 한국측 인사의 진출계획에 대비, 조직및 회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밖에 한국지회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지회부회장을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감사 2명을 선임토록 했다. 이사회는 또 제 12회 REAAA 총회(필리핀 마닐라, '06.11.23) 개최 시 대규모 참관단을 구성 파견키로 결정했다.

■ 2006 아부다비 국제도로교통박람회 참관

- 공무원·관련업체 직원 등 31명 참관단 구성

우리협회는 지난 3월12일 아랍 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국제도로교통박람회(ROADEX 2006)에 한국국제전시장(KINTEX)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될 '2007 국제도로교통박람회'의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금번 ROADEX 2006 행사에는 30개국의 180여 업체가 참가 도로, 터널, 교량, 주차, 교통 분야의 신기술, 신공법과 신기자재 등을 출품 전시하고 8 천여명이 참관했다. 우리나라에서 설치한 한국관에는 총 8개 업체가 참여해 고유 제품을 선보였 한편, 우리협회는 공무원과 관련업체 직원으로 구성된 참관단을 인솔, 박람회 참관및 두바이, 카이로, 이스탄불 등 3개국의 도시를 순방하며 해당국의 도로상황 및 기술교류 기회제공 등 참가자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한국도로교통협회 사무실 이전

- 구상빌딩에서 한도빌딩으로 확장이전

우리협회는 지난 3월2일, 경영 내실화와 회원 편의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사무실을 대치동 구상빌딩에서 한도빌딩으로 이전 하고, 1차 방문객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권병식 도성회 회장 및 황광웅 REAAA 한국지회



좌측부터 김국일 동부엔지니어링 사장, 양봉집 다산 컨설턴트 대표이사, 박경부 한국방재협회 회장



좌측부터 박래선 한국도로공사 기술본부장, 최주영 극동엔지니어링 회장, 권병식 도성회장, 조건창 협회 상근 부회장



좌측부터 유경수 한국도로공사 기술연구원장, 장명순 한양대 교수, 황광웅 건화 엔지니어링 회장, 전한철 한국도로공사 처장, 이해경 다산 컨설턴트 사장, 김덕곤 천일기술단 부사장

장, 유경수 KHC 기술원장, 장명순 한양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현판식을 가졌다.

■ 제 32차 운영위원회 개최

- 3개 보고안건 및 4개 심의안건 다뤄

우리협회는 지난 3월8일 협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 16명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최주형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회의에서는 '05년도 회원현황을 비롯, 운영위원회 개최실적, 협회발전기금 및 “도로의 날” 행사 협찬금 출연현황 등 보고 3개 안건을 모두 원안접수 하였다. 운영위원회는 또, 총 4개 심의안건 중 '05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및 '0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개선(안) 등을 원안의결하고 '06년도 제 1차 이사회 및 제 37회 정기총회 개최(안)을 심의 총회 개최를 2006년 3월28일 11시로 최종 결정했다.